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1호
서기 2002년 1월 9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중심 잘 지켜 중용의 정신계 길러야

지켜보지만 하면 되는지...

문 스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근본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묵묵히 지켜보지만 하면 부처에 이르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수 억겁을 거쳐서 진화되어 나오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을 때, 인간의 육체 속에는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거쳐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겠지요.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했을 때에 열 달을 모음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호물호물하게 시작이 돼 가지고,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또 하(下)의 생명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돌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 없는 나날을 거쳐오면서 그런 모습에서 점차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에 내 모습으로 보고,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보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는지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내 아님이 없습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 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진 업식들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가 말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또, 사랑적인 욕망으로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적인 욕망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그 만중생들은 제가끔 한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일체 만물들도 역시, 인간이하의 동물들도 모두 한 가지씩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안에서 움직여 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는 거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딱칠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타파하고 또는 반쯤으로써 움직여질 수 있는 심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이 자유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 지 다 내 마음으로서 그쪽의 마음과 들어

답 여러분과 함께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잘 돌리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계절이 간다 하더라도 모두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본다면 그 날이 그 날이고 우리에게 마음들도 항상 그대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해서 마음도 새롭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로이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조절이 되고 화하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

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이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에 공(空)하다고 하지만, 시절의 인연이 임오(壬午)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끝없는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진리의 법을 일깨워주시는 스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생의 지표도 삼아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체 강건하시기를 제발보살님 전에 발원드립시다.

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법당을 잘 지키면서 법당 속의 모든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고 한가음으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 행이라고 보

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육신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돌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직여질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마는 마음의 근본은 영

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며, 진실하진 사실하지 않으나 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대뇌에, 즉 두뇌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모든 게 현실로 차근차근히, 피할 수도 없이 감겨진 것이 풀려져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력되어 풀려 나오는 것과 고를 어떻게 요리하여 오려려 나를 밝히는 재료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오직 여러분의 한 마음의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실로 어떻게 해야 만이 나를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또 모가 나도 통글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상대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오랫동안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통수 사 가지고 와!' 이랬다 그거를 사 가지고 오지요. '너, 알아서 사 가지고 와!' 한다면 그 집에서 뒤통수 해먹을 줄 알고, 입맛이 어떤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사옵니까? 그와 똑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묘해서 마음 내는 것을 잘 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음 내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심봉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잘 파악하셨습니까?

병고 털고 활기있게 살고파

문 이제껏 건강하게 살다가 목 디스크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제까지 내 몸을 움직인 것이 내가 아니라 한마음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은 신도입니다. 이렇게 병이 든 것 또한 주인공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원망스런 마음은 일체 갖지 않고 있으나 저로 인해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노부모께는 한량없이 최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로 제 한 몸 거동조차 원할치 않은 이러한 병고에서 벗어나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인공에 관하여 읊을까요?

답 나야 뭐, 의사가 아니니 무슨 다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의사들도 고치기 힘든 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 하나의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준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요.

육신이 떨어진다 해서 마음 자체의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근본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내세에 다시금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공했다면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는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업 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못되고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스리는 생각이 미처야 만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어요! 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저것 딱칠 때마다 내 마음은 화해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지요? 바꾸어서 봐야 되지요.

아버지 노릇할 때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하고 형 노릇할 때는 자연스럽게 형 노릇하듯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좋아라' 하고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공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는데, 도대체 공으려고 한다면 그게 끊어지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올라가지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아주 지혜로운 본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경험을 쌓고 진화되고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해서 인간까지 올라온 결과이므로 인간에게는 지혜로움과 발전과 기능,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천연적으로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병고와도 '알아서 해'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요것대로 해!' 이랬다 되지,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그러나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있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선원에 다니면서 지극

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인간엔 본래부터 지혜로움이... 용도에 따라 마음도 바뀌어야

가안 겁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인공에게 놓아라. 팔괘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에게 놓아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더디니까 '잘 될 수 있게 결정을 지어서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더디고 빠르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놓는 방법이 달라지는지요?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놓아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찾는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주인공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주인공이 해주어야' '주인공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주인공이란 마음의 근본과 마음 내는 것과 육신이 움직여지는 걸 동시에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은 팔방미인이자 할 수 있지요. 팔방으로 뛰어다니다 죽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용도에 따라서 변해서 애고도 세균성도 영계성도 유전성도 나오게 되는데, 애고라는 것이 고정되게 나오는

놓는 방법이 왜 다른지요

문 좋은 말씀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에서 놓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잘 이해

가파른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역시어문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